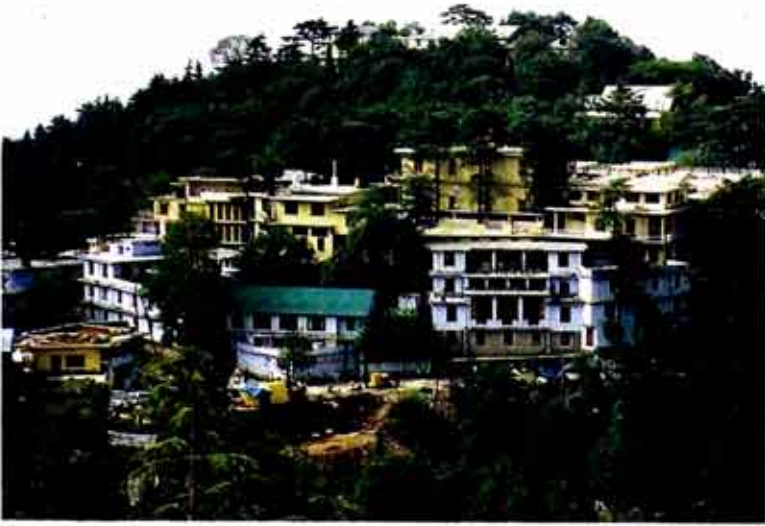


인간은 단 한 번 태어난다 www.buddhanews.com



◊달라이 라마 궁(제일 위쪽)과 남갈사원(중간).

티베트 불교전통 계승하는 '다람살라 윗동네 망명정부'

## '자유 티베트 그날을 위해' 비폭력 독립운동 산실



◊남갈사원 스님들의 법담(토론) 장면.

지구상의 마지막 불국토였던 티베트의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 히말라야 협곡의 천길 낭떠러지 위에 걸쳐 있는 산길을 돌고 돌아 도달할 수 있는 있는 이곳. 해발 1800m를 휘감아도는 구름과 바람 위에서 티베트인들은 멀리 고향의 만년설을 회상하며 살고 있다. 신앙의 자유와 민중의 생존을 위해 저항했던 지난 반세기,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의 주인 티베트인들은 서구인들이 부러워하던 불교적 이상향을 잃고 이웃나라 인도 히말라야의 끝자락에 머물고 있다. 중국의 티베트 침공으로 인구의 5분의 1인 120만명이 살상을 당했지만,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아힘사(비폭력)' 정신은 건디 이후 세계인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아힘사 정신을 티베트 독립문제에서도 예외없이 적용하는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완전한 독립이 어렵다면, 전통 불교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자치를 원한다"고 말한다. 이만큼 티베트인들에게 있어 불교 문화의 전통은 그들 삶의 중요한 부분이자 영혼의 고향이다.



◊14세기 조성된 국보급 유물인 필사본 <반야경>.

### 남갈사원 3백여 스님 정진 도서관엔 7만여 경전 보관

다람살라 아랫동네엔 주로 인도인들이 살고, 티베트인들은 500m 위의 윗동네에 살고 있다. 1만 5천여명의 티베트인들이 사는 이곳은 티베트를 탈출해 인도 각지에 살고 있는 12만명과 인도 이외 다른 나라에 흩어진 1만여명 등 13만여 티베트인들의 독립적인 삶의 보금자리이다. 10여명의 인도 인구나 전체 티베트인 300만명과는 비교가 안되지만, 티베트의 문화전통을 유일하게 이어가는 터전이다.



◊ '티베트 어린이 마을', 티베트 불교와 현대학문을 함께 가르치는 10년 과정의 사립 교육기관이다.

다람살라 곳곳에는 나라를 잃은 가운데서도 전통을 유지하려는 티베트인들의 삶과 신앙,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서원을 엿볼 수 있는 곳들이 많다. 다람살라 윗동네 중심지에는 달라이 라마가 주석하는 궁전과 티베트 망명정부(영국식 의회민주주의)의 내각, 국회, 법원 등이 있다. 또 모국 티베트의 사원을 그대로 본딴 중앙회당(Tsuglagkhang)과 남갈(Namgyal)사원 등지의 사찰에서 나라 잃은 고통을 불심을 통해 이겨내도록 돕는 스님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달라이 라마 궁의 맞은편에 위치한 중앙회당은 티베트 불교의 총본산인 조감사원을 대신한다. 석가모니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보살하고 있는 파드마삼바바(Padmasambhava; 인도 나란다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티베트에 밀교를 전한 고승)와 관세음보살상이 티베트 불교의 상징이자 귀중한 성부로 모셔져 민족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고 있다. 중앙회당 옆에는 달라이 라마의 직할 사찰인 남갈사원이 있다. 포탈라궁전을 본뜬 이 사원에는 300여명의 스님들이 정진하고 있다. 사원 앞 도랑에서는 달라이 라마가 설법하는 법회가 열리기도 하고, 의견이 엇갈릴수록 격렬해져 마치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티베트 스님들간의



◊달라이 라마와 가규파의 17대 지도자인 까르미파(왼쪽), 지난해말 중국을 탈출한 까르미파는 15세의 티베트 차기지도자다.

법담(토론)이 이어졌다. 쿠엔(Kuten)이란 신탁자(神託者)를 주지로 삼아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는 네충(Nechung)사원은 우리나라의 산신각처럼 불교와 전통신앙의 혼용을 엿보게 한다. 1972년 네팔에서 라마 툽텐예세가 창립한 투시타(Tushita) 명상센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상센터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배우 리처드 기어 등 서구인들이 자주 찾는 곳도 바로 여기도. 불법을 지키기 위한 티베트인들의 눈물 어린 노고가 진하게 배어 있는 곳은 다람살라 도서관이다. 41년 전 중국 국군의 침공 당시 피난민들이 짐 속에 숨겨 히말라야를 넘어 가져온 <반야경>(14세기 제작) 등 7만여권의 옛 경전들이 책마다 따로 노란 보자기에 싸여 보관돼 있다. 1971년 문을 연 이 도서관에선 외국인들을 상대로 티베트어나 티베트불교에 대한 유료 강좌도 열고 있다. 이 도서관과 '티베트 의화 및 정성학연구소' 내의 박물관에는 목숨을 걸고 지켜 낸 유서깊은 성보들이 가득하다. 하지만 이곳의 유물들은 박제화된, 화석화된 골동품들이 아니다. 전통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애정에 바탕을 둔

살아있는 정신적 유산인 것이다. 티베트의 진정한 전통은 달라이 라마의 평소 소신처럼 '티베트인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발적인 인식'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미 6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티베트 어린이마을(TCV)에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기숙사생활을 하도록 하며, 일반적인 교육과정과 불교, 점성학, 전통의학, 영어, 힌두어 등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50년 전 일제치하에서 일본어를 배우며 민족의 식을 잃게왔듯이 이곳의 학생들은 티베트 불교문화의 정수를 그대로 전수받으며, '자유 티베트'의 그날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물론 티베트 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영어는 물론 현대과학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티베트어린이마을을 졸업한 일부 학생들은 독특한 티베트 전통이 배어 있는 '티베트의학 및 점성학연구소'에 진학한다. 이곳에선 불교에서 우리 몸을 지탱하는 요소로 간주하는 지(地) 수(水) 화(火) 풍(風) 공(空)을 바탕으로 병을 나누고, 약초를 배합해 조제한 환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의도인들을 배출한다.

### 고등학교까지 기숙사생활 영어·과학·점성학등 교육

중·고등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인도나 미국, 유럽의 상급학교로 진학하기도 한다. 또 일부는 각 사찰로 출가의 길을 걷는다. 특히 12세 이상의 여자 아이들은 여(女)행자교육원으로 출가한다. 과학 4년, 수학 4년, 불교 4년 등 13년의 과정을 거쳐야 사미니계를 받을 정도로 엄격하며, 한국·대만과는 달리 비구니제는 아직 설해지지 않고 있다. 현재 12세부터 64세까지의 여성자 200명이 더위를 잊은 채 정진중이다. 이밖에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은 전통공예 학교에 진학한다. 100명의 학생들이 탕화, 목조각, 석조각을 전문적으로 배워 국내외에서 티베트 불교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도 티베트인들이 종교와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전통은 정신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했을 때만 보존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을 세운다고 전통이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전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부해 나갈 때 전통은 보존될 것입니다. 티베트도 그렇겠지만 세계 어느 나라나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이런 전통계승론은 인재불사에는 소홀하고, 성보박물관 세우기에 급급한 한국불교계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마음이 착한 티베트 사람들. 이런 순박한 심성과 엄격한 수행 전통은 날로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고향을 되돌아 보게 하는 살아있는 전통이다.

인도 다람살라=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 몸 기꾸기, 마음 기꾸기 무공해 복합안방 미용비누

눈치조동자

비쓰는동자

좌선동자

연꽃

**제품가격**  
 ■ 1개 당 : 3,000 원(구입가격 50,000원 이하 시 발송료 별도)  
 ■ 4개 1세트 : 10,000원 (구입가격 50,000원 이하 시 발송료 별도)음선가  
 ■ 200개 이상 : 주문자 디자인 투명비누 속에 삽입 개당 : 2,500원  
 ■ 500개 이상 : 주문자 디자인 투명비누 속에 삽입 개당 : 2,000원

•전화: 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http://www.mahamall.co.kr

### 후덥지근한 장미질! 침대위에 얼음이라도 깔았으면... 네, 깔이드리죠!!

## 리빙스톤 "요람 침대"

▶최고의 안락함! 바로 그 침대  
 ▶최고의 편안함! 바로 그 침대  
 ▶최고의 쾌적함! 바로 그 침대

▶첫맛이 유아부터 수험생, 신혼부부, 노년층까지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뜨끈뜨끈하게...  
 ▶유해전자파, 수백, 펀드기 완전 해결  
 ▶침대에서 원격의선과 음이온이  
 ▶www.kipa.org 특가기술센터 클릭  
 ▶검색어(동향도침대)

생중신인 등록 (제0188136)  
 상표등록출원 (제20-3104)

**氣 리빙스톤**  
 본사·A/S : 02)424-9427, 2203-7821